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 11년 무엇이 달라졌나

세월호 참사가 11주기를 맞았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로 향하던 중 침몰해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으로 인해 많은 승객이 내부에 남았고,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 차례 국가 차원 조사에서는 각기 다른 결론이 도출됐다. 내인과 외력을 두고 충돌이 여전한 상황이나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침몰 당시 약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청구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유명 진통제 '이브' 국내 반입 금지



일본 여행 필수약품 국내 반입 불가

일본 여행 쇼핑 리스트로 큰 인기를 끌었던 진통제 이브(EVE)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관세청이 최근 이브에 포함된 알릴리소프로필세틸우레아를 단속 품목으로 지정하면서다. 이브는 생리통과 두통 완화에 효과가 좋아 여성들로부터 큰 인

기를 끌었다. 하지만 통증 완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존성과 혈소판 감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은 이브 쿵과 이브 A 등 이브 전 제품을 국내 반입 금지 조치하고 공항 검역 단계에서 적발 시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반입 반복 적발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광주서 싱크홀 발생... "지반 모니터링 필요"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 깊이 2m 싱크홀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서 가로 0.9m, 깊이 1.7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는 즉시 통제됐고 복구 작업과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는 208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강원, 서울이 가장 많았고 광주는 네 번째였다.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과 상수관 파손, 부실 공사 등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시 중심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계획 없는 개발과 감시 체계 부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후속 조치로는 지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노후 하수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1 오너, 산불 피해 복구에 2000만원 기부



광주 출신 'T1 오너' 산불 피해 성금

광주 북구 주민이자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 팀 T1 소속의 오너 문현준이 최근 발생했던 경북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2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오너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이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 활동에 쓰인다. 오너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너는 광주 북구에서 태어나 동신고를 중퇴한 뒤 T1에 입단했다. 그는 주전 정글러로 2022년 롤드컵 준우승에 기여했으며 2023~2024년 LCK(롤 챔피언스 코리아)와 롤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01 주황색과 기업

마케팅 곳곳에 투입된 주황색

●색채와 마케팅 주황은 빨강처럼 따뜻한 색으로, 심장박동 수나 맥박 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색조가 밝아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주황색을 향신료처럼 사용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생동감이 있는 주황색을 소량만 사용하라는 뜻이다. 주황색을 잘 사용하면 발랄하고 활기 넘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경박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황색은 상황에 따라 '저렴한 가격'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싸고 손에 넣기 쉽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겐 세일(bargain sale)을 하는 소매업자에게 좋은 색깔이다.

주황색은 주목하거나, 창조적이거나, 파격적인 감각을 표현할 때,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다. 강렬한 이 색은 신경을 건드리고 피곤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색채와 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고유한 색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에르메스(Hermes)는 주황색을 사용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ING생명은 자국의 컬러 이미지인 오렌지색을 회사의 이미지로 연결해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다. 1845년 설립된 보험 회사 내셔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에 뿌리를 둔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오렌지색 N자를 CI로 사용해 왔다.

1881년 설립된 네덜란드 국영 우체국 은행 Rijkspostspaarbank는 네덜란드 정부를 상징하는 푸른색 사자 문양을 CI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1991년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네덜란

드의 대표색인 오렌지와 사자가 만나 ING 생명의 오렌지색 사자로 탄생하게 됐다.

나이키의 로고는 빠른 속도를 의미하는 '휩(SWOOSH)'이다. 나이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것이다. 로고의 색상은 오렌지색을 사용하고 있다.

페덱스의 로고는 '밤새 달려가 물건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별밤의 항공사' 또는 '올빼미 작전'으로 알려졌다. 페덱스는 원래 페더럴 익스프레스(Federal Express)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미국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과 거래하는 것처럼 믿음이 가고, 익스프레스(Express) 제트기를 운송 수단으로 사용해 아주 빠르다는 두 단어가 합쳐져 탄생한 이름이다. 로고의 색상은 파랑과 주황을 채택하고 있다.

㈜유유제약 회사에서는 비타민C 광고를 노란 레몬의 이미지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오렌지색 전략으로 차별화했다. 특히 오렌지가 레몬보다 비타민C 함유량에서 앞선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웅제약 대웅제약 회사는 하얀색과 연두색이던 기존의 소화제와 차별화해 오렌지색 마케팅으로 제품 색상과 일치시키는 전략을 선보였다. 특히 오렌지색은 따뜻하고 활기차면서도 빨간색보다 부드러운 즐거움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화제 광고의 딱딱함을 피할 수 있었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오렌지색 엔시아'라는 광고 카피로 대박을 터트렸다. 오렌지색 엔시아는 제품의 특징인 비타민C가 들어 있는 점에 착안해 나온 키워드였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